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 比較

李 永 燮

本 研究의 目的은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商品價格 및 單位費用을 이용해 직접 比較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研究結果에 따르면 北韓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 차이는 현재 北韓이 국제무역에서 통용하고 있는 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로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北韓에서의 價格 및 賃금이 실제적인 需要·供給狀態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北韓通貨의 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公式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暗市場價格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의 體制轉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北韓通貨의 實際購買力은 현재 商業換率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實證結果는 南韓과 北韓의 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未加工食料品, 住居費, 保健·醫療 등이 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低廉한 반면 加工된 食料品, 家具 및 家事用品, 被服·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南韓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南韓과 北韓의 價格構造 差異는 經濟成長 및 社會變化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北韓體制에서의 人爲的인 價格策定에 의한 價格構造의 歪曲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

I. 問題의 設定

한 국가의 通貨購買力과 다른 국가의 通

貨購買力을 換率을 통해 비교하는 방법이 各國 通貨의 購買力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購買力平價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1인당 實質所得은 달러화를 매개로 한 換率이 나타내는 소득

筆者: 本院 研究委員

* 執筆過程에서 有益한 助言들을 해주신 本院의 高日東, 文字植, 朴元巖, 全洪澤 博士에게 感

의 1.27배($8,635 / 6,790 = 1.27$)에 달하고, 중국의 경우는 무려 6.65배($2,460 / 370 = 6.6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적인 比較뿐만 아니라 時系列的인 비교도 換率을 이용한 通貨의 購買力 비교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간의 換率推移를 보면 1980년 말부터 85년 말까지 4년동안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의 가치가 2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일본의 실질GNP성장률을 달러화로 표시하면 年 -1.95% 에 그치고 있어 현실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성장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換率을 매개로 한 비교는 이처럼 전체적인 購買力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構造比較에 있어서도 상당한 歪曲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換率과 購買力간의 차이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資本財의 價格은 선진개발국에서보다 후진 저개발국에서 상대적으로 비쌀 것이기 때문에 資本財에 대한 通貨의 購買力은 선진개발국에 비해 후진 저개발국에서 상대적

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나 換率은 이러한 개별적인 構造를 반영해 주지 못한다. 社會主義 국가에서는 換率과 通貨購買力간의 차이가 資本主義 국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資本主義 국가와 社會主義 국가간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하는 경우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換率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社會主義體制 국가인 北韓通貨의 購買力이 換率에 의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과연 北韓通貨의 購買力은 어느 정도인가? 저개발국 通貨의 購買力은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換率에 의한 것에 비해 2~3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반적인 결과가 北韓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의 목적은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수집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 직접 比較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그동안 資本主義體制 국가들간의 通貨 購買力 비교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²⁾ 資本主義體制 및 社會主義體制와 같은 이질적인 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通貨 購買力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몇몇 예외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Kravis, Heston, and Summers (KHS, 1978)는 購買力平價를 이용해 각국

謝드린다.

- 1) *Economist*, 1993년 5월 15~21일자 참조.
- 2)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UN의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ICP)가 있다. 1970년을 基準 時點으로 10개국의 購買力과 實質 GDP를 비교한 제1차 ICP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 5년마다(일부 예외도 있음) 대상 국가를 확대해 가면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의 1970년도 소득을 비교하는 UN 國際比較프로젝트의 대상국 중 하나로 헝가리를 포함시켜 헝가리通貨의 購買力이 \$1:14.3 forints이고 헝가리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42.7%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Pryor (1979)는 KHS의 보충 연구로서 헝가리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포함시켜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의 소득을 資本主義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일부 데이터를 조정한 후 KHS의 방법을 이용해 비교한 결과, 1970년도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의 通貨 購買力이 이전의 결과(Pryor and Staller, 1966)보다 감소하였고, 1970년대 초 동구의 소득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avlik(1985)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양국 품목간의 질적 차이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 조정한 후 通貨 購買力과 소비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그의 비교에 따르면 1980년도 오스트리아通貨와 체코通貨간의 購買力平價는 1AS : 0.523Kcs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에 근거해 소득을 비교한 결과 체코의 경제발전이 오스트리아에 비해 미미했고, 따라서 1964년에 비해 상대적인 생활수준이 훨씬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이러한 연구들이 南韓과 北韓간의 通貨

購買力을 비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國際間 比較의 方法論 論爭에서 누차 지적된 것처럼⁴⁾ 다른 나라들의 국제적인 비교를 원용하는 경우 南北韓과 관련된 독특한 構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연구 결과를 원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南北韓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南北韓 양자만의 독립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南北韓만의 독립적인 연구가 南北韓의 사정을 위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지라도 이 연구가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정확히 파악하고 價格構造 차이를 정확히 나타내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北韓의 자료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거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지속해 오다 근래에 들어와 다른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南北韓간의 通貨 購買力 차이에 대한 일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商品價格 및 要素費用을 이용해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하는 購買力平價理論 및 單位費用平價理論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논하고 있다. 第Ⅲ章에서는 購買力平價 및 單位費用平價에 기초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실증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실증분석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第Ⅳ章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이용해 南韓과 北韓의

3)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소비수준을 비교한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1968)의 연구가 있다.

4) 國際比較 方法論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Drechsler(1973)를 참조.

價格構造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第V章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II. 購買力 比較 理論

일반적으로 國際間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購買力平價에 기초한 방법과 單位費用平價에 기초한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購買力平價에 기초한 방법은 最終商品價格을 이용한 것으로서 각국 通貨의 購買力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주로 消費側面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최종생산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생산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최종생산을 구성하고 있는 生産要素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通貨의 購買力은 商品購買力뿐만 아니라 生産力을 반영하는 生産要素 購買力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單位費用平價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購買力平價

購買力平價(purchasing power parity : PPP)란 모든 국가에서 通貨의 購買力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通貨의 購買力이란 주어진 通貨를 가지고 재화 및 용역을 얼마만큼 구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物價와 逆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購買力平價란 다시 말해 모든 국가에서의 물가수준은 同一通貨로 표시하는 경우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용한 購買力平價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P 를 어떤 준거상품바스켓(reference commodity basket)의 自國通貨(SW) 표시비용이라고 하고, P^* 를 동일한 상품바스켓을 구입하기 위한 他國通貨(NW) 표시비용이라고 하자. 또한 $E_{SW/NW}$ 를 自國通貨로 표시한 他國通貨의 價格, 즉 他國通貨 한 단위와 교환되는 自國通貨의 量이라고 하면 購買力平價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 = E_{SW/NW} \cdot P^* \dots\dots\dots(1)$$

(1)식을 E 에 대해 정리하면

$$E_{SW/NW} = P / P^* \dots\dots\dots(2)$$

와 같이 쓸 수 있다. (2)식이 의미하는 바는 두 국가 通貨간의 購買力平價는 두 국가간의 物價水準比率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購買力平價를 이용하는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각국에서 물가를 계산할 때 그 경제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수준은 그 국가 通貨의 購買力을 정확

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 얻은 購買力平價는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설사 각국의 물가가 그 경제내에 있는 모든 품목을 고려해 계산되었을지라도 각국마다 존재하는 품목이 다를 것이고, 또한 존재하는 품목이 동일할지라도 각국마다 물가계산에 적용되는 加重과당이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購買力平價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세계에서는 關稅쿼터 등의 貿易制限措置 및 輸送費用이 존재한다. 이러한 貿易障壁은 상품 및 용역의 이동을 제한할 만큼 크기 때문에 非交易財가 존재하게 되고 購買力平價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넷째, 財貨市場의 構造가 完全競爭이 아닌 獨寡占構造인 경우 獨寡占者들은 각각의 시장에 價格差別化를 할 수 있게 되어 購買力平價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購買力平價는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競爭力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⁵⁾

2. 單位費用平價

購買力平價가 각국의 競爭力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된 것이 單位費用平價(unit cost parity :

UCP)이다. 單位費用에 기초해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하는 경우 도출된 결과가 각국의 競爭力을 반영한다는 장점 외에도, 생산비용은 可變的인 利潤部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기적인 변화에 따라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商品價格에 비해 長期價格變化를 잘 반영해 주고 있고, 아울러 一時的인 物價變化보다는 永久的인 物價變化를 보다 잘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通貨의 相對的 購買力 차이가 각국의 장기적인 경제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기초한 購買力平價보다 要素費用에 기초한 單位費用平價가 적절할 것이다.

要素費用을 이용한 單位費用平價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W 를 자국에서의 要素費用이라고 하고, W^* 를 타국에서의 要素費用이라고 하자. 또한 PR 을 자국에서의 要素生産性이라고 하고, PR^* 를 동일한 要素의 타국에서의 生産性이라고 하자. 單位費用平價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화폐단위로 표시했을 때 양국에서의 單位要素費用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즉

$$W / PR = E_{SW / NW} \cdot (W^* / PR^*) \dots\dots(3)$$

따라서 양국 通貨간의 單位費用平價 $E_{SW / NW}$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_{SW / NW} = \frac{W / PR}{W^* / PR^*} \dots\dots\dots(4)$$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국에서 生産性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타국에 비해 要素費用

5)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購買力平價를 絶對的 購買力平價라고 부른다. 絶對的 購買力平價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相對的 購買力平價를 이용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문제점은 동일하므로 이 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증가하였을 때 長期均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自國通貨의 가치가 하락하고 單位費用平價 $E_{SW/NW}$ 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單位費用平價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購買力平價와 같아진다. MP 를 자국에서의 限界勞動生産, MP^* 를 타국에서의 限界勞動生産이라고 하고 다음의 가정이 성립한다고 하자:

(i) 勞動이 生産費用 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므로 生産費用이 거의 勞動費用으로 표시될 수 있다.

(ii) 양국의 總生産函數가 勞動에 中立적인 요인인 效率性 要因(PR/PR^*)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MP = (PR/PR^*) \cdot MP^* \dots \dots \dots (5)$$

(iii) 生産要素市場이 完全競爭의이다. 따라서

$$W = P \cdot MP \dots \dots \dots (6)$$

(5)식과 (6)식을 결합하면

$$\frac{P}{P^*} = \frac{W/PR}{W^*/PR^*} = E_{SW/NW} \dots \dots \dots (7)$$

따라서 (7)식으로부터 購買力平價와 單位費用平價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동일해짐을 알 수 있다. (7)식이 의미하는 바는 效率性 요인의 차이만큼 조정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國際貿易理論에서의 要素費用均等化가 總量的 水準(aggregate level)에서 성립한다

는 것이다.

單位費用平價理論도 購買力平價理論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의 선택, 요소시장의 완전성, 요소구성의 동일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첫째 각 국가에서의 要素費用을 정확히 반영하는 대표적인 要素費用水準을 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특정한 기업의 要素費用으로 할 것인지, 어떤 특정한 산업의 要素費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전체의 평균적인 要素費用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더구나 要素費用은 산출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산출량이 각국의 경제력을 적절히 반영해주는 산출량인지 알기가 어렵다. 셋째, 單位費用을 계산하기 위한 要素費用概念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위에서 要素費用을 가장 대표적인 勞動費用으로 대체해 單位費用平價를 계산했지만 총요소 중 노동 이외의 다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위의 계산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要素費用 및 生産性에 대한 자료는 물가자료보다 일반적으로 포괄범위가 작고 그나마도 구하기가 더 어렵다.

Ⅲ. 實證分析

위에서 소개한 이론들을 南北韓의 通貨購買力을 비교하는 데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들이 資本主義制度

하에서 상품 및 용역의 이동이 자유롭고 價格이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北韓의 경제체제는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해 오고 있고 價格도 정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비록 이들 이론들을 이용한 분석결과가 兩國 通貨의 實質購買力을 비교하지는 못할지라도 南北韓 通貨 購買力 비교 연구의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데이터 및 分析方法

이 논문에서 이용된 데이터는 크게 購買力平價 계산을 위한 데이터와 單位費用平價 계산을 위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가. 商品價格데이터

購買力平價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는 1984년 南韓의 消費者物價 品目別 價格 年平均값과 北韓의 1984년 4월 기준 消費者 品目別 價格(配給價格)이다.⁷⁾ 南韓의 데이터는 統計廳의 협조로 취득할 수 있었고, 北韓의 데이터는 統一院이 수시로 발표한 것을 韓國貿易協會에서 1989년 정리 발표한 것이다.

<品目分類 및 選定>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北韓物品을 分類하는 작업과 양국간 물품의 比較可能性에 대한 確認作業이었다. 물품을 분류할 때 南韓의 경우 1984년 393개 품목을 消費者物價指數 산정에 포함시켰었고, 현재는 일부 품목의 탈락 및 신 품목의 추가로 470개 품목을 消費者物價指數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北韓의 경우 北韓의 物品分類基準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 품목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北韓의 물품 분류도 南韓의 기준에 따르고 품목이 일치

6)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北韓에서의 價格 및 貨金도 시장의 需給을 반영하지 못하고 實際價值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 名目所得의 實質價值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中央機關이 물가를 人爲적으로 固定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에서 고정된 물가는, 물가가 실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內在적으로 인플레이션 壓力이 累積되어 있지만 表出되지 않고 있는 ‘抑壓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곧 購入 가능한 商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通貨量의 存在로 확인될 수 있고, 또한 일상생활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줄서기 行列’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勞動市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消費者들의 需要와 乖離된 生産活動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生産性은 市場經濟에서 측정되고 있는 生産性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貨金도 市場狀態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勞動市場에서의 需給狀態로부터 상당히 歪曲되어 있을 것이다. DIW(1993) 참조.

7) 購買力平價를 계산할 때 어느 物價指數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그러나 通貨의 전체적인 購買力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볼 때 서비스價格이 제외된 都賣物價보다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는 消費者物價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Officer(1982)를 참조.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제외시켰다.⁸⁾

양국 물품의 質을 비교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려웠다. 많은 농수산물 등 未加工 1次 産業商品은 그래도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質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工產品들은 비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품목의 質을 조사하기 위해 北韓物品 전시 전에 가서 일일이 살펴보고 비교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작업은 ICP작업에서의 品質對照作業 과정 중 일부(equivalence in quality 및 equi-

valence in use)⁹⁾만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소주의 경우 北韓產 25도 소주와 南韓의 진로소주는 equivalence in quality 방법에 비추어 비교 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준단위 당 양측의 품목을 비교하였다. 서비스 항목인 경우는 더욱 비교하기가 어려웠으나 北韓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및 北韓生活記錄物 등을 참조하여 비교하였다. 보다 많은 품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質 차이를 고려한 후 價格을 조정하는 price adjustment 또는 價格決定의 주요요인에 대한 回歸分析을 통해 價格을 유도해 내는 regression method(hedonic regression technique) 등은 이 논문에서 이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품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적은 품목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비해 購買力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러한 장점은 兩國 比較보다는 多國 比較에서 더 많이 얻어질 수 있고 北韓의 價格構造 특성상 이들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品目分類 및 質의 比較를 통한 品目選定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양국에서의 각 품목에 대한 測定單位의 調整이다. 이에 대한 조정도 南韓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상당한 품목의 경우(특히 어류의 경우) 비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測定單位가 모호하여 제외시켜야만 했다. 예를 들어 南韓에서 조기의 測定單位는 1마리(생선길이 30cm 정도)로 하는 데 반해 北韓資料는 kg

8) 이 논문에서의 品目選擇方法은 ICP에서 이용된 선택방법을 따랐다. ICP에서의 품목선택은, 첫째 最終生産品의 가격으로 하고, 둘째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품목의 최소수를 정하고, 셋째 각 품목의 선정은 支出比重이 크고 각국에 共通的으로 존재하는 품목으로 한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랐다. 南北韓간의 양국 비교에서는 ICP의 카테고리 분류를 따를 필요가 없었으므로 둘째 원칙은 무시하였다. 이러한 選別原則을 따를 때 일반적으로 소수의 品目만이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경우 많은 품목을 공유하고 있어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있었다.

9) equivalence in quality란 약간의 디자인 또는 構成物의 차이가 있지만 무시할 만하고 費用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 기본적으로 同一品目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quivalence in use란 품목이 다르기는 하나 用途가 동일한 것으로, 예를 들어 100볼트 전구와 220볼트 전구는 다른 품목이지만 生産費用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用途가 같으므로 다른 국가에서 다른 전구를 사용할지라도 同一한 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ICP작업에서는 위의 두가지 방법 외에 physical identity, replication of product, price adjustment 및 regression method 등의 여섯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Kravis, Heston, and Summers(1982) 참조.

으로 나타나 있어 30cm 정도의 조기 1마리를 몇 kg으로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비교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양국 物品의 質 및 單位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거친 후 남은 품목은 132개 품목이었다. 이 중 食料品이 66개, 非食料品이 66개이다. 非食料品 중 대부분은 전구, 카메라 필름, 양은냄비 등의 製造業品이고, 서비스 품목은 15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南韓의 物價指數를 구성하는 품목의 비율과 비교해 食料品이 과다 포함되고 製造業 製品이 과소 포함됨으로써 食料品의 價格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製造業 製品 價格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南韓通貨의 購買力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加重值〉

구체적으로 購買力平價를 계산할 때 각 품목에 대한 加重值는 세가지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다. 첫째는 해당연도 南韓 消費

者物價水準 산정에 이용되는 品目の 加重值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北韓 品目の 상대적인 支出 加重值를 이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첫째와 둘째 방식에 의한 결과를 幾何平均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 논문에서는 南韓의 加重值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南韓의 加重值만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소위 'country reversal test'¹⁰⁾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南韓의 物價指數가 下向偏向(downward biased)되도록 만든다.¹¹⁾ 加重值 부과시 132개 품목의 總加重值가 100이 되도록 조정하여 상대적인 加重值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暗市場價格〉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국가에서의 價格은 通貨의 購買力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보다 잘 나타낼 수도 있는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北韓에서의 暗市場價格은 비록 제한적이거나 市場去來에 의해 형성된 價格이므로 暗市場價格이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보다 잘 반영할 수도 있다는 기대하에 暗市場價格을 이용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北韓에서의 暗市場價格은 北韓으로부터의 귀순자 및 北韓에서 체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關係機關에서 작성 발표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暗市場價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품목만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에 이용된 총품목의

10) country reversal test란 時際比較(intertemporal comparisons)에서의 time reversal tes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국가가 基準國家로 채택되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모든 국가를 對稱的으로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Kravis, Heston, and Summers(1982), 3章 참조.

11) 이러한 偏向效果를 'own-weight effect'라고 부르며 時際比較에서의 Gerschenkron effect에 해당한다. 이는 數量과 價格간의 逆의 關係 때문에 발생한다. Kravis, et al.(1982), pp.74~75 및 Drechsler(1973) 참조.

수가 훨씬 적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暗市場價格이 가능한 품목은 暗市場價格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公式價格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暗市場價格에 대한 자료는 80년대 후반의 價格인데 일부 자료는 정확한 價格을 알 수 없어 일정한 범위로 나타낸 것이 있다. 이런 경우 최소값을 84년의 暗市場價格으로 하였다.¹²⁾

나. 勞動費用 및 生産데이터

單位勞動費用¹³⁾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는 南北韓의 勞動生産性 및 賃金이다. 勞動生産性은 연간 總附加價值生産을 就業者數로 나누어 얻어질 수 있는데, 南韓의 總附加價值生産, 産業別 生産 및 就業者數(年平均 當月末 勤勞者數)에 대한 자료는 『韓國統計年鑑』(統計廳)에서 구했고, 南韓 勞働者의 平均賃金(年平均 月給與 總額)은 『每月勞働統計調查報告書』(勞働部)에서 얻을 수 있었다. 北韓의 總附加價值生産에 관한 1987년 데이터는 『南北韓의 經濟指標』(統一院)를 참조하였고, 産業別 生産에 대한 1987년 데이터는 황의각(1992)에 발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991년

北韓의 總生産 및 産業別 生産에 관한 데이터는 韓國銀行이 계산한 데이터(『北韓의 GNP 推計』)를 이용하였다. 北韓의 總就業者數는 『南北韓의 經濟指標』 및 Eberstadt and Banister(1990)에 발표된 두가지 수치를 이용했으며, 産業別 就業者數는 황의각 및 ILO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北韓 勞働者의 平均賃金은 統一院이 발간한 『北韓의 社會文化指標』에 나타난 수치를 사용했다.

〈單位勞動 計算上の 問題〉

南韓의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北韓의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에 봉착했었다. 總産業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할 때는 北韓의 總勞働者, 總生産에 대한 자료는 그런대로 가능했으나 總産業 平均賃金에 대한 자료가 없어 一般勞働者로 분류되는 직책의 賃金을 이용하였다. 總産業 單位勞動費用은 별로 문제점이 없었으나 産業別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할 때는 몇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첫째, 南韓의 産業分類 基準과 北韓의 産業分類 基準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의각과 韓國銀行이 분류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둘째, 北韓 勞働者의 産業別 숫자에 대한 자료가 출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北韓의 실상에 대한 통계가 수집되지 않으면 불가

12) 北韓에서의 일부 품목의 暗市場價格은 〈附表 1〉을 참조.

13) 單位費用平價는 生産要素의 費用을 비교해야 하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勞働費用이 生産要素 費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實證分析에서는 勞働費用의 비교를 통해 單位費用平價를 도출해 내고 있다.

능하나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北韓의 產業別 勞動者數를 계산해 보았다: 1) 첫번째로는 자신의 추정방법으로 產業別 就業者數를 구분해 놓고 있는 황의각의 자료인데 그의 구분이 필자의 구분과 일치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2) 두번째로는 Eberstadt and Banister의 자료에 나타난

總經濟活動人口에 황의각이 추정한 產業別 勞動者 比率을 곱해 產業別 勞動者數를 계산하였다¹⁴⁾; 3) 세번째로는 總經濟活動人口는 Eberstadt and Banister의 통계를 이용하고, 產業別 勞動者 比率은 ILO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이용하였다.¹⁵⁾ 셋째, 賃金에 관한 데이터도 職業別로 표시되어 있고 각 職業從事者數가 표시되지 않아 본 논문의 의도에 필요한 광업 및 제조업 勞動者의 賃金을 勞動者로 분류되는 重勞動者, 輕勞動者 및 一般勞動者 賃金의 平均賃金으로 대신하였다.

北韓의 總生産에 대한 최근의 자료는 韓國銀行을 통해 1992년까지 가능하지만 北韓의 產業別 勞動人口에 대한 자료는 1989년 이후 가능한 것이 없어 1989년의 각 產業別 勞動人口에 年間 人口成長率만큼 추가한 수를 1989년 이후의 北韓의 각 產業別 勞動人口로 사용하였다.¹⁶⁾

다. 購買力平價 및 單位費用平價 計算式

위와 같은 데이터 조정을 거친 후 購買力平價를 계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은 (2)식의 변형식이다.¹⁷⁾

$$E_{sw/nw} = \frac{1}{\sum (P_i/P_i^*)\omega_i}$$

(南韓의 品目別 加重値를 이용¹⁸⁾)... (8)

한편 單位費用平價를 통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하기 위해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은 (4)식의 변형식이다.¹⁹⁾

- 14) Eberstadt and Banister는 產業別 勞動者數를 소개하지 않고 職業別 勞動者數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北韓의 勞動者는 國家勞動者(state labor), 事務勞動者(office labor), 協同農場 勞動者(coop labor), 서비스勞動者(service labor)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職種分類는 產業分類와 일치하지 않는 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조업분야 공장의 事務職 勞動者인 경우 產業別 分類에서는 製造業으로 분류되는 반면 職業別 노동력분류에서는 事務職으로 분류되고 있는 등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Eberstadt and Banister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產業別 勞動者數로 이용할 수는 없다.
- 15) 北韓의 統計에 대해서는 출처마다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87년 總經濟活動人口에 대한 통계만 보더라도 統一院 자료는 897萬 2千名, Eberstadt and Banister는 842萬 4百名, ILO(1980년대 중반)는 783萬 8千名, FAO(1986)는 934萬 6千名 등으로 자료에 따라 거의 150萬名 정도의 차이가 있다.
- 16) 南韓 및 北韓의 主要經濟指標은 <附表 2>에 나타나 있다.
- 1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ravis, Heston, and Summers(1978)를 참조할 것.
- 18) 北韓의 品目別 加重値 ω_i^* 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購買力平價를 얻을 수 있다.
- $$\sum (P_i/P_i^*)\omega_i^* \dots\dots\dots (10)$$
- 19) (9)식에서 인용된 韓國銀行이 추계한 北韓의 GNP는 北韓의 實物生産을 南韓價格으로 평

$$E_{SW/NW} = \frac{[W/(TP/N)]}{[W^*/(TP^*/N^*)]} \dots\dots(9)$$

(8)식과 (9)식에서 P , P^* , ω , TP 및 N 은 각각 i 품목의 南韓價格, 北韓價格, 南韓에서의 加重值, (總)産業生産(實物), (總)産業就業者數를 나타낸다.

2. 分析結果

가. 商品價格을 利用한 購買力 比較

〈表 1〉은 商品價格을 이용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比較하고 있다. 첫째열은 北韓에서 공식발표한 價格(配給價格)資料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자료에 의한 1984년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平價는 北韓 1원 : 南韓 675.69원으로서 商去來換率에 의한 南北韓 通貨의 交換比率 1 : 364.71²⁰⁾과

가한 것이다. 남북한간 單位費用을 比較하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貨幣單位인 南韓價格이 (9)식의 분자 및 분모에서 相殺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檢討者들에게 감사드린다.

20) 商去來換率은 달러화를 매개로 결정된 換率이다. 1984년 당시 달러화 대 北韓 원화의 交換比率은 1달러 : 2.21원이었고, 달러화 대 南韓 원화의 交換比率은 1달러 : 806.02원이었다. 따라서 달러화를 통한 北韓 원화와 南韓 원화와의 間接交換比率은 北韓 1원 : 南韓 364.71원이 된다.

21) 우리나라에서의 品目分類는 상품의 産業別 分類보다는 소비자들의 消費支出形態에 따르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처럼 産業別 購買力을 比較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統計廳의 분류에 따라 食料品과 非食料品 구분에 따른 購買力만을 比較하였다.

比較할 때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高評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價格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대부분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용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價格이 시장에서의 均衡條件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配給價格을 통해 나타나는 北韓通貨의 購買力은 實質購買力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고,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平價는 北韓이 일반 거래에서 이용하고 있는 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北韓의 配給價格을 이용해 얻은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平價가 商業換率보다 北韓의 公式換率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北韓의 公式換率이 北韓通貨를 지나치게 高평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비추어 볼 때 配給價格을 이용해 얻은 南北韓通貨의 購買力平價가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過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購買力平價를 상품 그룹별로²¹⁾ 小分類해 살펴본 결과는 위에서 품목을 선정할 때 지적인 문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北韓에 비해 南韓에서 상대적으로 食料品價格이 비싸고 기타 製造業品價格이 싸기 때문에 食料品の 비중을 크게 하는 경우 南韓通貨의 購買力이 實質購買力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 〈表 1〉에서 나타나듯이 食料品만을 고려한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平價는 16:746.61로서 전체상품을 고려한 것에 비

해 10.5% 정도 南韓通貨의 購買力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非食料品만을 고려하는 경우 南韓通貨의 購買力은 전체상품을 고려한 경우보다 14.9% 정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表 1〉 商品價格을 이용한 購買力平價(1984)
(北韓 원 : 南韓 원)

	公式價格	暗市場價格
총 상품	1 : 675.69	1 : 135.35
식료품	1 : 746.61	1 : 124.00
비식료품	1 : 575.15	1 : 162.76

註 : 公式價格은 北韓의 配給價格이며, 暗市場價格은 北韓으로부터의 귀순자 및 北韓을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價格임.

配給價格이 시장에서의 需給條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北韓通貨의 購買力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通貨간의 實質購買力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社會主義體制의 價格構造에 대한 연구에서 항상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需給狀況을 보다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價格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暗市場價格을 이용해 보았다. 〈表 1〉의 둘째열은 暗市場價格의 파악이 가능한 품목은 暗市場價格을 이용하고 暗市場價格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다른 품목은 配給價格을 그대로 이용해 購買力을 비교해 얻은 것이다. 1984년 暗市場價格이 가능한 품목은 전체 132개 품목 중 16개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한 결과는

첫째 열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즉 이 경우 南北韓通貨간의 購買力平價는 北韓 1원 : 南韓 135.35원으로서 商業換率보다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상당히 저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配給價格을 이용한 결과와 일부 暗市場價格을 이용한 결과간에 거의 다섯배(675.69 / 135.35 = 4.99)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Kornai가 지적한 대로 北韓經濟도 다른 社會主義 국가와 마찬가지로 ‘缺乏經濟’(shortage economy)로서 낮게 책정된 配給價格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고 그보다 훨씬 높은 價格을 지불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 이후 대부분의 社會主義 국가들이 경험한 바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체제 개방 이후 舊社會主義 국가들의 通貨價值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그 국가들의 상황이 불안한 데 따른 요인도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박되었던 需要가 표출되면서 商品價格이 상승하고 따라서 通貨의 購買力이 現實化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도 市場經濟體制를 도입해 상품에 대한 需給狀態가 정확히 價格에 반영될 수 있다면 配給價格에 기초한 購買力보다는 暗市場價格에 기초한 購買力에 근접한 購買力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모든 품목의 價格이 現實化되는 경우 〈表 1〉에서와 같이 일부 품목의 暗市場價格만을 고려해 얻은 결과보다도 훨씬 더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절하시키고 南韓通貨의 購買力을 절상시킬 가능성

이 있다.²²⁾

暗市場價格을 이용한 購買力平價를 消費支出 形態別로 분류해 보면 配給價格에서 살펴본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食料品만을 고려한 경우의 購買力平價는 1:124.00으로서 전체적인 상품을 고려했을 때보다 南韓通貨의 購買力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한편 非食料品만을 고려한 경우는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平價가 1:162.76으로서 南韓通貨의 購買力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를 配給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와 결합해 보면 北韓에서의 價格構造 歪曲程度에 대한 흥미있는 추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食料品の 경우 두 결과간에 약 6배($746.61 / 124.00 = 6.02$)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반해 非食料品の 경우 약 3.5배($575.15 / 162.76 = 3.5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부여된 上限價格이 市場均衡價格보다 낮은 경우 上限

22) 최근 暗市場에서 美國通貨 1달러:北韓通貨 50원(이를 달러화에 대한 南韓 원화의 換率을 이용해 南北韓 通貨의 交換比率로 환산하면 北韓 1원:南韓 16원 정도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3) 商品價格을 통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할 때 최근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北韓의 配給價格이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暗市場價格은 일부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를 반영한 90년도의 購買力平價(1:100.42)는 84년도에 비해 약 26% 정도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低下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여기서 總產業은 鑛工業 및 서비스業을 포함한 非農林水産業을 말한다.

價格과 暗市場價格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價格構造가 왜곡된다. 만일 兩價格간의 乖離程度가 價格構造 歪曲程度를 말해 준다면 <表 1>에서의 결과는 北韓의 경우 食料品價格의 歪曲程度가 非食料品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차후 南北韓의 經濟統合時 南北韓 通貨간의 交換比率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通貨의 적정한 가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交換比率를 찾아내고자 하는 경우 商品價格에 기초한 購買力平價를 이용해 上限 및 下限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價格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市場價格이 配給價格보다는 높다는 것이므로 北韓通貨價値의 最高限度는 配給價格을 이용해 얻은 購買力平價가 될 것이다. 또한 缺乏經濟에서 暗市場價格은 市場價格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모든 暗市場價格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얻은 購買力平價를 北韓通貨價値의 最低限度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 要素費用을 이용한 購買力 比較

<表 2>는 單位費用平價를 통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비교한 결과이다. 첫째열은 總產業²⁴⁾ 單位勞動費用을 이용해 얻은 결과이고, 둘째열은 鑛業 및 製造業의 單位勞動費用을 이용해 얻은 결과이다. 北韓 勞動統計의 제약성 때문에 北韓 勞動者의 賃금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일정한 범위로 표시된 것들이 많아 單位費用平價도 그에 대해 특정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수치를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1987년 總産業 單位勞動費用을 이용한 購買力平價는 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 자료의 평균적인 購買力平價는 1:1,427.71~1,903.61로서 1987년 北韓의 商業換率 384.30(=822.41/2.14)보다 훨씬 크다. 이처럼 높은 單位費用平價가 얻어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單位費用平價式인 (9)식에서, 南韓勞動者들에 비해 北韓勞動者들에게 지불되는 賃금이 生産性에 비해 낮거나 北韓勞動者들의 生産성이 賃금에 비해 높은 경우 E값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는 北韓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불되는 賃금과 실제로 지급되는 賃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單位費用平價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南韓에서는 賃금을 가지고 주택비, 연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北韓에서는 주택비 및 一般 社會保障的 支出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賃금으로 포괄해야 하는 비용범위가 南韓에 비해 훨씬 작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社會保障的 支出을 賃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勞動者들이 실제로 받는 賃金額은 표면상 공식적으로 지불되는 賃金額의 200~300%에 달하고 있다.

25) 이 점을 지적해 주신 全洪澤 博士에게 감사드린다.

北韓에서도 유사한 상황임을 가정하고 單位勞動費用을 비교해 보면 약 1:500 내외가 됨을 알 수 있다.²⁵⁾

1991년의 單位費用平價는 1987년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 연속 北韓의 경제가 퇴보했음에도 賃금은 거의 변하지 않아 北韓에서의 單位勞動費用을 상승시켰으나 동시에 南韓에서도 生産性에 비해 賃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南韓에서의 單位勞動費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北韓에서의 單位勞動費用 증가와 南韓에서의 單位勞動費用 증가가 서로 상쇄되어 南韓通貨와 北韓通貨간의 상대적 가치가 변하지 않아 單位費用平價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의 公式賃금을 이용해 얻은 單位費用平價 결과와 配給價格을 이용해 얻은 購買力平價 결과를 비교해 보면 單位費用平價로부터 얻은 결과가 購買力平價로부터 얻은 결과보다 北韓通貨를 더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北韓에서의 成果配分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鑛工業分野만의 單位勞動費用을 이용한 결과는 總産業에서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鑛工業 勞動費用을 이용한 單位費用平價는 1987년 1:1,337.66~1,433.20으로 總産業에서의 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北韓에서는 製造

〈表 2〉 勞動費用을 利用한 單位費用平價 比較

(北韓 원:南韓 원)

	總 產 業 ¹⁾	鑛 工 業 ¹⁾
통일원 및 황의각의 인구자료를 이용한 경우 ²⁾ :		
1987 ³⁾	1 : 1,367.97 ~ 1,823.96	1 : 1,191.62 ~ 1,276.73
1991 ⁴⁾	1 : 1,291.22 ~ 1,515.78	1 : 1,258.08 ~ 1,322.60
Eberstadt and Banister 및 황의각의 인구자료를 이용한 경우 ⁵⁾ :		
1987	1 : 1,457.58 ~ 1,943.44	1 : 1,269.67 ~ 1,360.37
1991	1 : 1,605.22 ~ 1,884.39	1 : 1,093.47 ~ 1,149.55
Eberstadt and Banister 및 ILO의 인구자료를 이용한 경우 ⁶⁾ :		
1987	1 : 1,457.58 ~ 1,943.44	1 : 1,551.68 ~ 1,662.51
1991	1 : 1,605.22 ~ 1,884.39	1 : 1,336.34 ~ 1,404.87
세 자료의 평균:		
1987	1 : 1,427.71 ~ 1,903.61	1 : 1,337.66 ~ 1,433.20
1991	1 : 1,560.55 ~ 1,761.52	1 : 1,229.30 ~ 1,292.34

註 : 1) 北韓勞動者의 賃金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일정한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單位費用平價도 그에 상응해 일정한 범위로 나타냈음.

2) 통일원이 추계한 北韓의 總經濟活動人口와 황의각이 추계한 産業別 人口比率을 이용해 北韓에서의 産業別 勞動者數를 구했음.

3) 1984년 北韓의 産業別 生産은 황의각에 제시된 産業別 生産比率을 이용해 구했음.

4) 1991년 北韓의 産業別 生産은 韓國銀行의 『北韓의 GNP 推計』를 이용하였음.

5) Eberstadt and Banister가 추계한 總經濟活動人口와 황의각이 추계한 産業別 人口比率을 이용해 北韓에서의 産業別 勞動者數를 구했음.

6) Eberstadt and Banister가 추계한 總經濟活動人口와 ILO 통계에 나타난 産業別 人口比率을 이용해 北韓에서의 産業別 勞動者數를 구했음.

業에 종사하는 勞動者들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勞動者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賃金を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서비스業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고 있으며, 동시에 南韓에서는 鑛工業에 종사하는 勞動者들이 서비스業에 종사하는 勞動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賃金を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北韓의 경제체제에서는 製造業勞動者들을 우대하는 반면 서비

스業에 종사하는 勞動者들을 경시하는 풍조를 반영해 주고 있고, 南韓에서는 生産性에 비해 서비스業 종사자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鑛工業의 單位費用平價는 總産業에서와는 달리 평균적으로 1991년도에 감소하여 北韓通貨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北韓에서의 景氣沈滯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重工業分野이고, 南韓에서 製造業에 비

해 서비스業에서의 賃금이 급상승한 사실을 감안하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商品價格을 이용한 결과가 北韓通貨의 實質購買力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마찬가지로 單位勞動費用에 기초한 결과도 실질적인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北韓에서는 賃금이 成果配分이라는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成果配分이 生産性を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1992년 2월 13일) 北韓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으로 근로자들의 平均生活費를 43.4%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여 鑛工業에서는 賃金を 이용한 單位費用平價를 계산해 보면 1:857.25 ~ 901.21로 北韓通貨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만일 北韓內에서의 賃금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生産性を 반영해 주고 現實化된다면 北韓通貨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대로 北韓에서의 賃金構造는 南韓에서의 賃金構造와 다르기 때문에 南北韓의 賃金を 동일한 費用概念으로서의 賃金으로 조정해야만 한다. 즉 北韓의 賃금이 실제 총비용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北韓의 賃金構造를 분석한 후 다른 社會保障的 支出을 모두 포함한 賃金を 要素費用概念上的 賃金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중국의 경우에 비추어 北韓의 賃金構造를 조정해 비교해 보면 이미 지적한 대로 北韓通貨의 가

치가 <表 2>에 나타난 수준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通貨交換比率 결정에 따른 競爭力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交換比率 決定原則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 독일에서 東獨通貨를 지나치게 고평가해 동독 기업들의 競爭力이 일시에 소멸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北韓의 單位勞動費用이 적어도 南韓의 單位勞動費用, 좀더 나아가서는 주변 競爭國들,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혹은 동남아 국가들의 單位勞動費用보다 작아지도록 交換比率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單位勞動費用과 같아지도록 하는 南北韓 通貨의 交換比率를 北韓通貨價値의 最高限度로 삼을 수 있다.

IV. 北韓의 價格構造 分析

이 章에서는 <表 1>의 결과(北韓 公式配給價格을 이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北韓의 價格構造가 南韓의 價格構造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購買力平價를 이용하는 경우 兩經濟體制에서 어떤 품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및 저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北韓當局이 어떤 품목에 간접적으로 補助金을 주고 어떤 품목에 間接課稅를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換率을 통한 通貨의 購買力 比較에서는 할

수 없는 분석인데, 그 이유는 만일 두 경제의 價格構造가 동일하다면 北韓物品의 價格에 換率을 곱하는 경우 동일한 南韓物品의 價格과 같아져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購買力平價와 換率이 같아지지만 價格構造가 다른 경우 購買力平價와 換率간의 차이는 품목마다 서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價格構造를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고려했던 132개 품목을 統計廳의 구분에 따라 특징별로 분류한 후 南韓의 그룹에 비해 北韓의 그룹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고평가 및 저평가되었는지를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표 q 를 만들었다:

$$q = \sum q_i / n_i \dots\dots\dots (11)$$

$$q_i = (P_i^* \cdot E_{SW/NW} - P_i) / P_i \dots\dots\dots (12)$$

(11) 및 (12)식에서 q_i 및 n_i 는 각 그룹내에서 i 품목의 相對的 價格差異 및 그룹에 속하는 品目數를 각각 의미하는 변수이고, P_i^* 및 P_i 는 각 그룹내 i 품목의 北韓價格 및 南韓價格을 나타내며, $E_{SW/NW}$ 는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平價(여기서는 편의상 北韓의 配給價格을 이용해 얻은 1:675.69를 이용)를 나타내 준다. 만일 南北韓간의 價格構造가 그룹단위별로 비교해 동일하다면 q 값은 모든 그룹에서 0이 될 것이나 價格構造가 다르다면 q 값은 0과 달라지게 된다. 北韓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취급되는 그룹에서는 q 값이 陽數로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렴

하게 평가되는 그룹에서는 陰數로 될 것이다. q 의 절대값이 0에서 벗어날수록 南韓과 北韓간의 價格構造에 더욱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表 3〉에 나타난 q 값에 따르면 우선 첫번째 食料品 그룹 전체는 南韓의 동일 그룹과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한 바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總食料品 66개 중 北韓에서 높은 價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9개 품목은 南韓에 비해 낮은 價格이 매겨져 있다. 그런데 總平均이 거의 0에 가깝게 나온 것은 감자, 고구마 및 김 등의 일부 품목이 지나치게 높은 價格으로 매겨져 있어²⁶⁾ 채소 및 해초 그룹의 q 값이 큰 값의 陽數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北韓에서는 農產物價格을 南韓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매기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北韓經濟體制에서 그들의 주장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生活必需品는 국가의 암묵적인 補助下에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奢侈品에 대해서는 높은 價格을 설정해 暗默的인 重課稅를 부과하고 있다면 農產物은 당연히 生活必需品로 분류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價格을 통해 政府補助를 해주어 食料品價格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동일 食料品 그룹내에서도 소그룹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未加工品은 南韓에 비해 價格이 낮은 반

26) 筆者는 이를 데이터상의 誤謬로 推測하고 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表 3〉 南北韓 價格構造 比較¹⁾ (1984)

q	식 료 품							기타 ²⁾
	곡류	육류·유란	어개류	채소·해초	과일	유지·조미료		
	-0.888	0.081	-0.414	0.749	-0.301	-0.213	0.405	
q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오락	교통·통신	기타 ³⁾
	-0.530	NA	1.335	0.588	-0.219	0.713	0.022	0.335

註: 1)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價格比較는 〈附表 1〉에 있음.

2) 빵, 과자, 차, 음료, 주류, 외식을 포함.

3) 이·미용, 장신구, 담배, 숙박료 및 수수료를 포함.

면 加工品은 價格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그룹들 중 北韓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주거비 그룹과 보건·의료 그룹이다. 이는 社會主義 국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거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그룹의 價格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南韓에 비해 낮게 매겨져 있다. 반면 가구 및 가사용품 그리고 피복·신발 등은 南韓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北韓에서 生活必需品의 개념이 南韓과 다르며 南韓에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미 生活必需品化되어 있는 것이 奢侈品으로 간주되어 높은 價格을 통한 일종의 準課稅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그룹이 예상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교육 및 오락 그룹은 다소 예상과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국가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어 資本主義 국가에 비해 價格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의 비

교에서 北韓 價格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統計廳의 分類에 따른 교육·오락 품목에 TV, 교양·오락기구, 학용품 및 교양·오락서비스 등 어느 정도 생활 수준에 이르러야 소비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北韓에서는 이들을 당연히 奢侈品으로 간주하고 價格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南韓通貨와 北韓通貨간의 購買力差異를 商品價格 및 勞動費用을 이용해 비교해 보았다. 이들 결과에 따르면 北韓의 公式價格 및 公式賃金を 이용하는 경우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差異는 현재 北韓이 國際貿易에서 통용하고 있는 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北韓에서의 價格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결정되고 北韓勞動者의 賃金 또한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北韓에서의 價格 및 賃金이 실제적인 需要·供給狀態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된 價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北韓通貨의 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公式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暗市場價格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北韓通貨의 實際購買力이 어느 정도인지는 北韓에서의 價格歪曲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商業換率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實證結果에 따르면 南

韓과 北韓의 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未加工食料品, 주거비, 보건·의료 등이 南韓에 비해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生活必需品에 대해 北韓當局이 인위적으로 낮게 價格을 책정함으로써 暗默的인 價格補助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加工된 食料品, 가구 및 가사용품, 피복·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南韓에 비해 높은 價格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노동을 경시하고 奢侈品에 대한 일종의 準課稅를 부과하는 北韓當局의 인위적인 高價格政策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南韓과 北韓의 價格構造 차이는 일부 經濟成長 및 社會變化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北韓體制에서의 인위적인 價格策定에 의한 價格構造의 歪曲으로 인한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統計廳, 『主要統計指標』, 各號.

——, 『韓國의 物價指標』, 各號.

——, 『韓國統計年鑑』, 各號.

統一院, 『北韓經濟動向 綜合評價』, 各號.

——, 『北韓經濟現況』, 各號.

——, 『北韓의 社會文化指標』, 1991.

——, 『南北韓의 經濟指標』, 1992.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關係 發展을 위한 基本構想』, 1991.

韓國貿易協會, 『北韓의 流通構造와 價格體系』, 1989.

韓國銀行, 『北韓의 GNP 推計』, 各號.

황의각, 『北韓經濟論: 南北韓 經濟의 現況과 比較』, 도서출판 나남, 1992.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Comparison of Levels of Consumption in Austria and Poland*, Document WG. 22/19, United Nations, 1968.

- DIW, *Economic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993.
- Drechsler, L., "Weighting of Index Numbers in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mparis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19, No. 1, 1973, pp.17~34.
- Eberstadt, N. and J.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 S. Bureau of the Census, 1990.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Series.
- ESCAP, *Purchasing Power Parity and Quantity Comparison for the ESCAP Region*, 1985, Code No. ST/ESCAP/1128, United Nations, 1992.
- Foster-Carter, A., *Korea's Coming 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M212, 1992.
- Havlik, P., "A Comparison of Purchasing Power Parity and Consumption Levels in Austria and Czechoslovak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9, 1985, pp.178~190.
- IL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1950~2025*.
- Kravis, I. B., A. Heston, and R. Summer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 *World Product and Inc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Gross Product*,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 Officer, L. H., *Purchasing Power Parity and Exchange Rates: Theory, Evidence and Relevance*, JAI Press Inc., USA, 1982.
- Pryor, F. L., "Comparable GNPs per Capita: An Annendum," *Economic Journal*, Vol. 89, 1979, pp.666~668.
- and G. J. Staller, "The Dollar Values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s in Eastern Europe 1955," *Economics of Planning*, Vol. 6, No. 1, 1966, pp.1~26.
- Sinn, G. and H.-W. Sinn, *Jumpstart: The Economic Unification of Germany*, MIT Press, 1992.
- Welfans, P. J. J.(ed.), *Economic Aspects of German Unific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Springer-Verlag, Germany, 1992.

〈附表 1〉 北韓의 主要品目 價格 (1984)

(단위: 南韓 원)

	單位	配給價	暗市場價格	南韓價格
쌀	Kg	54	10,135~13,514	810
보리	Kg	41	6,757~10,315	440
간장	Kg	122		596
달걀	1개	115	1,351~2,027	60
돼지고기	Kg	4,730	13,510~27,028	3,100
소고기	Kg	5,068	23,649~27,028	8,933
두부	1모	81	2,027	132
치약	1개	946	4,730~5,406	385
칫솔	1개	811		210
스타킹	1켤레	676		366
운동화	1켤레	2,297	10,135~13,514	3,415
양복	1벌	81,083	202,707~270,276	77,900
컬러TV	1대	810,828~1,013,535	13,513,800	265,920
시계(전자)	1개	47,298~67,569	202,707~405,414	31,096
카메라	1대	270,276	675,690	132,369
선풍기	1대	54,055		33,515
세탁기	1대	270,276		184,370
다리미	1개	16,892		16,275
자전거	1개	270,276	2,702,760	5,249
건전지	1개	270		211
안경	1개	9,460~14,189		12,562
주전자	1개	6,757		1,885
맥주	1병	622		617
소주	1병	1,622	13,514	309
콜라	1병	1,014		217
사이다	1병	811	3,378	222
담배(평양)	1갑	1,216	13,514	500(술)
냉면 1인분	1인분	1,352~1,689		1,594
택시	1km	676		600
버스	1회	68		106
지하철	1회	68		179
전화(시내)	1회	68		20
이발료	1회	473~676		5,279
목욕료	1회	68		800
유원지입장료	1회	34~68		521
우표	1매	68		70

註: 이 표에서의 北韓數値는 商品價格을 이용한 購買力平價(1: 675.69)를 北韓價格에 곱한 값임.
 資料: 統一院, 『北韓의 流通體系分析』, 1984. [韓國貿易協會, 『北韓의 流通構造와 價格體系』, 1989에서 재인용]; 統計廳, 『韓國의 物價指標』.

〈附表 2〉 南韓 및北韓의 主要經濟指標

	1987년		1991년	
	南 韓	北 韓	南 韓	北 韓
GNP(경상:億달러) ¹⁾	1,363	194	2,817	229
농림수산업	143	39	225	64
광공업	452	116	806	87
서비스	768	39	1,786	78
1인당 GNP(달러)	3,110	936	6,518	1,038
무역수지(億달러)	76.6	-8.6	-51.5	-6.2
수 출	462.4	16.4	766.3	10.2
수 입	385.8	25.0	817.8	16.4
예산규모(億달러)	192	141	428	172
취업자(萬名) ²⁾	1,599.6	897.2	1,547.3	991.5
농림수산업	358	340.9	310.3	376.8
광공업	560.2	332.0	500.5	366.8
서비스업	817.2	224.3	1,046.8	247.9
임금(원) ³⁾	386,536	60	754,673	68.7
광공업	334,372	94.3	696,565	77.6
서비스업	502,650	...	851,219	...

註: 1) 資料: 統計廳, 『主要統計指標』; 統一院, 『南北韓 經濟指標』 및 『北韓經濟動向 綜合評價』; 北韓의 産業別生産 84년 자료는 황의각, 『北韓經濟論』, 1992; 91년 자료는 韓國銀行, 『北韓의 GNP 推計』를 이용.

2) 資料: 統計廳, 『主要統計指標』 및 『韓國統計年鑑』, 統一院, 『北韓의 社會文化指標』.
北韓의 産業別人口 통계는 황의각(1992)을 이용해 얻은 결과만 소개하고 다른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3) 資料: 勞動部, 『每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및 『北韓의 社會文化指標』.
南韓의 賃金은 常用勞動者 月總給與額임. 北韓의 總産業賃金은 一般勞動者 賃金이고, 鑛工業賃金은 重勞動者, 輕勞動者 및 一般勞動者 賃金의 平均임.